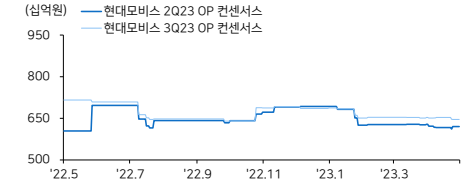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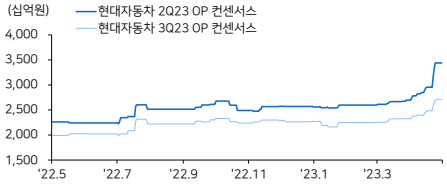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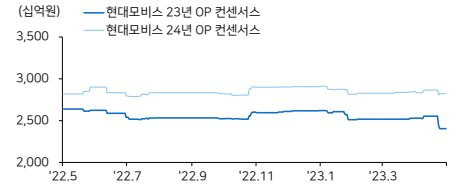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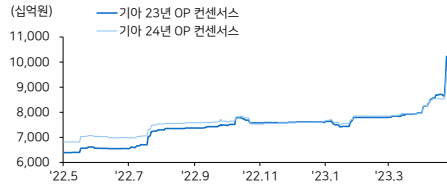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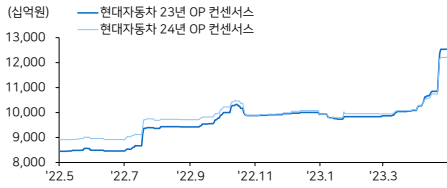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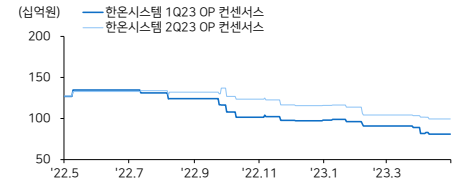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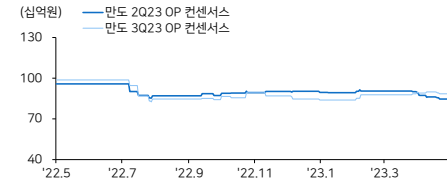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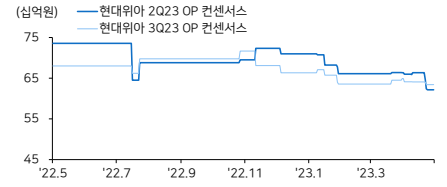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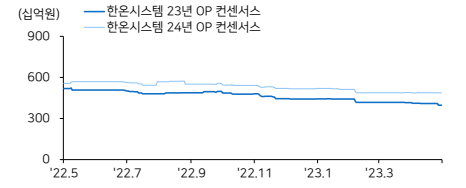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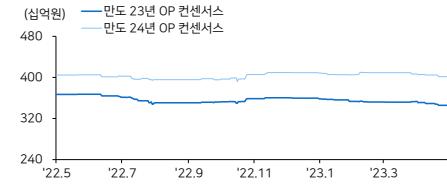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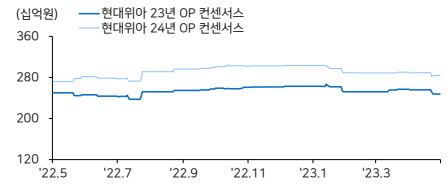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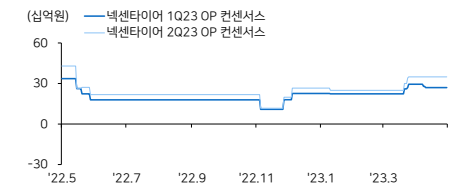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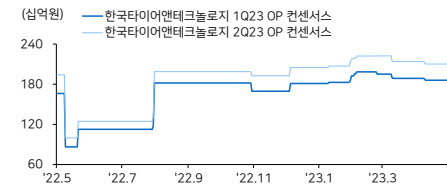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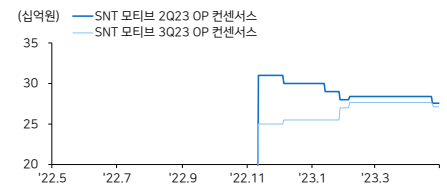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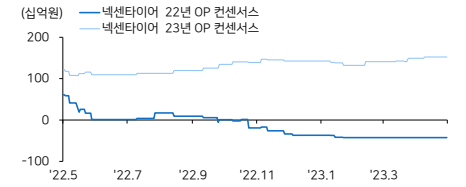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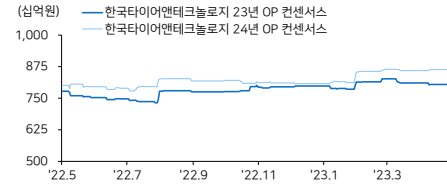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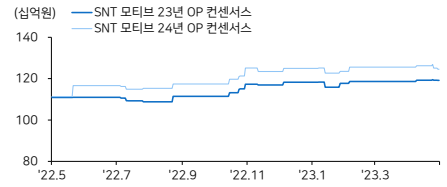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美에 전기차 모델 대폭 늘려 IRA 문턱 넘는다 (디지털타임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미국 시장에 전기차 라인업을 대폭 확대. 양사는 리스 비중 확대, 인센티브 활용에 더해 현지 마케팅 강화를 기반으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가동 전까지 현지 지배력을 다져간다는 전략.

<https://bit.ly/30EVw1C>

'더는 못버티', 러시아가 탈출하는 후 업체들...현대차는? (뉴스1)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시장 철수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 2021년 현대차의 러시아 점유율은 29%였으나 현재는 중국 업체에게 선두를 빼앗긴 모습.

<https://bit.ly/429tsa3>

Tesla Model Y is now the world's best-selling car, first EV to do so (electrek)

JATO Dynamics 분석가 Felipe Munoz는 1Q23 Tesla Model Y가 267,200대 판매되어 같은 기간 256,400대 판매된 토요타 Corolla를 앞서 전 세계 판매 1위를 달성. 또한 모델 Y 판매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Corolla 판매는 감소하는 추세.

<https://bit.ly/3Myl1hu>

Ford CEO says China main EV rival, not GM, Toyota (Reuters)

포드 CEO 짐 팔리는 GM이나 토요타가 아닌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다고 언급.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은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EV 생산을 지배하고 있다고 언급. BYD, Geely, 장성기차, SAIC 등을 승자로 꼽음.

<https://reut.rs/45IEzxx>

*'작년보다 70% 더'...현대차 노조, '역대급' 임금 인상 요구 (한국경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교섭을 앞두고 '역대급' 임금 인상 요구안을 마련. 4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해온 노조가 지난해와 올해 현대차의 실적 호조에 따라 기본·성급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나선 것.

<https://bit.ly/3Bxkl1y>

기아 이어 현대차, PBV 사업 뛰어들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3일 1·4분기 중앙노사협에서 PBV 사업 실증사업을 진행키로 합의. 현대차가 PBV 사업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 실증사업은 울산공장에서 이뤄지며 향후 공장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

<https://bit.ly/3owz5Cd>

Tesla CEO Elon Musk discusses EV future with Ford CEO Jim Farley (electrek)

Tesla CEO Elon Musk는 Twitter Spaces에서 Ford CEO Jim Farley와 전기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 논의, Twitter에서 녹음본을 청취할 수 있음. Ford는 두 CEO가 "북미 EV 채택 가속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논했다고 언급.

<https://bit.ly/435gyfBf>

Ford strikes deal with Tesla to gain access to rival charging stations in 2024 (Reuters)

포드는 포드 전기차 소유자들이 2024년초부터 북미에서 12,000개 이상의 테슬라 슈퍼차저를 통해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 또한 2025년부터 테슬라 슈퍼차저와 호환되는 충전포트를 장착해 아임티도 필요없게 할 계획.

<https://reut.rs/43oy0du>